'꽃 피고 물 흐르니'…아름다운 남도풍경을 보다

의재미술관, 소장품 기획전시
8월까지 '의재 목재 형제전'
산수화·화조화·서예 등 40여점
4전시실 '허달재 문인화전' 도

1 허백련 작 '위진팔황' 2 허행면 작 '강산무진팔폭병풍'
3 허달재 작 '문향'(聞香)

의재미술관(관장 이선옥)은 2025년 기획전시로 '꽃피고 물흐르니-의재 목재 형제전'을 오는 8월 31일까지 의재미술관 1, 2전시실에서 진행중이다.

'꽃피고 물흐르니-의재 목재 형제전'에는 의재미술관 소장품 중 의재(毅齋) 허백련(許百鍊, 1891~1977)과 그의 동생 목재(木齋) 허행면(許行冕, 1906~1966)의 산수화와 화조화, 서예작품 등 40여 점이 관람객을 맞고 있다.

오랜만에 선보이는 허백련의 '무릉도원'과 '석문도명'은 도연명의 '도화원기'를 주제로 한 그림으로 복숭아꽃이 핀 도원의 꿈을 보여주며, '위진팔황'은 바닷가 바위에 앉은 독수리의 기세가 눈길을 끈다.

진도에서 태어나 자란 의재와 목재는 19세기 문인화가 소치 허련(許鍊, 1808~1893)과 한 집안으로, 어려서 서예와 묵화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예술적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의재는 동양의 고전과 문인정신을 바탕으로 남종문인화풍을 견지하며 화단의 거장으로 일가를 이루었고, 목재는 형인 의재에게 서화를 배웠으며, 목재라는 호를 의재로부터 받을 만큼 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의재가 일본에서 법률 공부를 하던 20대에 돌연 화가의 길로 들어섰다면, 목재는 광주고보 재학 중 석고데생이나 수채화, 유화 등 서양화 기법과 이론도 접하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

목재는 한동안 공무원, 금광사업, 제지사업 등을 하다가 1938년 의재가 연진회(鍊眞會)를 설립할 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화업을 시작했다.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경산수도 여러 점 남겼다.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과 회화미를 강조하면서 자기 세계를 개척해 나갔다. 그의 그림 세계에는 허백련과 마찬가지로 추사 김정희로부터 이어 내려오는 문인화의 정신이 깊이 스며있다.

목재는 의재를 통해 서화를 익혀 화풍의 유사성도 많지만, 의재의 작품이 문인화 정신을 이어 평생 담담하면서도 기품있는 화풍을 보인 반면, 목재는 현실적인 풍경화와 화려한 군방도(群芳圖)로 고법(古法)을 혁신했다. 각색의 모란이 마당 가득 피어있는 의재 허백련의 모란병풍 '대부귀육곡일지병풍'과 갖가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목재 허행면의 '사계군방도'는 두 사람의 화풍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전시에서는 서로 같은 듯 다른 화풍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의재와 목재의 작품을 통해 근·현대 남종문인화의 다양한 면모를 즐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같은 기간 의재미술관 4전시실에서는 의재 허백련의 손자이자 의재문화재단 이사장인 직헌 허달재의 문인화전이 열린다.

'직헌 허달재 문인화전'에서는 담담하면서도 기품있는 수묵 사군자화 3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밝고 화려하면서도 격조 있는 매화그림으로 유명한 허달재의 최근작 수묵 사군자화와 도기를 그린 그림은 전통을 현대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선옥 관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기획전은 한 집안인 의재와 목재의 작품 뿐 아니라 의재의 손자인 직헌 허달재의 작품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라며 "주제가 말해주듯 꽃피고 물 흐르는 봄의 정취와 우리 남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만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안전교육, 인형극으로 쏙쏙!

매주 목요일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체험도 인기

인형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안전의 소중함'을 배워가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다.

광주시 북구 오치동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어린이 안전 인형극'이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인형극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취학 아동(2019~2021년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체험관 3층 응급안전체험 구역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40분간 펼쳐진다. 아이들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상황을 인형극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광주시 통합예약플랫폼 '바로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최대 150명, 무료.

한편 어린이 안전 인형극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3월까지 총 148회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미취학 아동 1만 5637명이 관람했다.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매주 목요일 오전 '어린이 안전 인형극'이 열린다. 〈광주시 제공〉

이정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장은 "어린이 안전 인형극 외에도 다양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속 가능한 안전 체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어린이들이 일상에서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체험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호남신학대 '은혜의 70년'

개교 70주년 기념음악회…29일 광주예술의전당

신학과 음악, 사회복지 등 융합 학문을 발전시켜온 지역 명문 호남신학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음악회를 연다. 함께 걸어온 시간에 대한 감사와 미래를 향한 다짐이 음악을 통해 울려 퍼질 예정이다.

'호남신학대 개교 70주년 기념음악회'가 오는 29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북구 운암동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은혜의 70년'을 주제로 한 이번 음악회는 함께 역사를 만들어온 대학 구성원 모두가 음악이 전하는 감동과 메시지를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임해철 명예교수

공연의 막은 성악 교수진이 연다. 윤학준의 가곡 '나 하나 꽃 피워'와 홍정식 목사의 찬양곡 '에벤에셀 하나님'을 통해 희망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어 김병무 교수가 지휘하는 클랑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연주하며 호남신학대의 자긍심과 비전을 드러낸다. 이밖에 피아니스트 나원진, 조혜원 교수의 협연 무대와 바리톤 조재경 교수, 섹소폰 박수용 교수 등의 다채로운 연주가 이어진다.

동문들도 뜻을 모아 합창 무대를 선보이며 개교 70주년의 의미를 더한다.

임해철 호남신학대 명예교수는 "이번 무대를 통해 지역민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호남신학대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조수미 "칼라스 음악으로 태교한 어머니…내 운명 정해져"

영화 '마리아' 관객과의 대화

"라디오에서 나온 마리아 칼라스의 목소리가 10대였던 제 어머니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성악가를 시키겠다고 결심까지 하셨대요. 완전히 칼라스에게 매료됐던 거죠."

소프라노 조수미는 19일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파블로 라라인 감독의 영화 '마리아' 관객과의 대화(GV)에서 자신이 마리아 칼라스(1923~1966)로 인해 성악가의 길을 걷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리아'는 20세기 오페라계 최고의 디바 중 하나로 꼽히는 칼라스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다.

조수미의 어머니는 조수미를 임신한 당시 칼라스의 음악으로 24시간 태교했을 만큼 그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 영향을 받아 딸을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키워냈다.

조수미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의 운명은 딱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면서 "네 살 때부터 성악, 피아노, 발레, 한국 무용, 피겨스케이팅, 웅변 등 안 배운 게 없다. 이걸 다 해야 오페라 무대에 설 수 있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그는 칼라스와 자신이 닮은 구석도 많아 놀랄 때가 있다고 했다. 특히 사랑을 갈구하는 개인적인 삶이 비슷해 보였다고 한다.

칼라스는 '그리스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1906~1975)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이후 파티와 술, 담배에 빠졌다. 그에게 실연당한 뒤에는 목 상태 악화와 우울증 등 심리적 요인으로 무대에 서지 못했다.

조수미는 대학 시절 연애를 하느라 학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서울대에서 제적당한 일을 떠올리며 "그때 저도 사랑을 열심히 했다"고 웃었다. 그는 "아직 그분(전 남자친구)의 영향이 있어서 사랑 노래를 할 때면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서 "예술가에게 사랑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칼라스가 오나시스로 인해 짧은 전성기를 누린 것을 보며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30년, 40년, 50년 동안 무대에 설 거야"라고 다짐했다고 한다.

"요즘은 결혼도 하고 커리어도 잡는 게 가능한데, 제가 처음 유학하러 갔던 당시만 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40년 전에 김포공항에서 아버지께서 제게 '노래하든 시집을 가든 둘 중 하나만 정하라'고 하셨죠. 저는 노래를 택했습니다."

영화 '마리아' 관객과의 대화 참석한 소프라노 조수미(오른쪽).

/연합뉴스

'포용지덕(包容之德)' 글자 보자기로 감싼 네 개 오브제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EIP 발표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제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는 모두를 대상으로 가능성을 담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의 화두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일깨운다.

(재)광주비엔날레가 최근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의 EIP(Event Identity Program)를 발표했다.

EIP는 '포용지덕'(包容之德) 글자를 보자기로 감싸 네 개 오브제로 구현했다. 천이 변형돼 연출되는 주름과 곡선은 빛의 스펙트럼처럼 확장돼 네 종류의 색으로 수렴된다. 우리를 감싸고, 연결하며, 함께 '너라는 세계'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상징하는데, 이는 포용의 순간과 포용디자인의 시작을 함의한다.

이번 EIP는 다양한 디자인 작업을 해온 작준 스튜디오(대표 전형준)가 개발했으며 사전에 최수신 총감독과의 전시 주제, 의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수신 총감독은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EIP는 포용 디자인을 화두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체 초점을 뒀다"며 "모던하면서도 따뜻한 이미지의 디자인과 색상은 주제의미를 부각시킨다"고 전했다.

한편 제11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올해 8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65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개최한다. 사전 예매는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